자가격리 사각지대 방지 총력

군산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전담부서 지정 특별관리 시행

군산시가 자가격리 중 발생 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자가격리자 중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타인 접촉과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자가격리자가 격리기간 해제 전 검체채취 시, 양성 확진자로 밝혀지는 일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대한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가격리자 중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의 자가격리 상황을 모른 채, 읍면동 이·통장이나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이 격리기간 중 해당가구를 방문해 밀접 접촉할 우려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해 특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담부서별 관리방안과 역할로 보건소는 - 가족 돌봄여부, 독거노인, 수급자, 1인 가구 여부 등 취약계층으로서 전담 보호 필요성을 사전조사해 별도 관리대상자로 지정·관리하고 지병 및 와상환자 여부, 외부 진료 필요여부도 조사해 진료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19감염예방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는 보건소로부터 받은 관리대상자 명단을 총괄 관리하며, 자가격리자 1:1 전담 직원 배치시, 특별관리 대상인 취약계층을 위한 전담직원 관리교육을 시행하고,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를 수시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와 자원봉사자 관리부서인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는 시내 요양보호기관 협조와 자원봉사센터 연계를 통해 요양보호사나 자원봉사자가 취약계층 가정방문시 사전에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읍면동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과는 읍면동별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읍면동 이·통장 특별 교육과 사전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 방문 시 사전 격리여부를 확인후 방문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철저한 방역 추진과 함께 자가격리자에 대한 보다 완벽한 관리가 필요한 때"라며, "이에 따른 요양보호사나 자원봉사자 등의 접촉이 차단되는 격리기간동안 취약계층분들이 외롭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일상을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관리한 자가격리자가 총 7,381명으로, 이중 6,964명이 안전하게 자가격리가 해제됐으며, 현재, 417명(21일 기준)이 격리가 진행 중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가 친환경 유기농 쌀을 CJ에 공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수확철 벼 생산단지의 모습이다.

친환경 유기농쌀 판로 확대

익산시, CJ에 150여톤 공급

익산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유기농 쌀을 세계적인 식품기업인 CJ에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10월부터 지역의 친환경 유기농 쌀 150여톤을 CJ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벼 가공 경영체인 삼기농협은 현미 가공라인(색채, 진동체 선별기 등)을 오는 9월까지 설치 완료해 원료곡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CJ에 공급할 친환경 유기농 쌀 원료곡 생산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유기농 친환경 벼 생산단지 28ha를 조성했다.

앞으로도 시는 CJ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해 익산 쌀 공급량을 계속 증대시켜 농가 소득 창출은 물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원료곡의 총 생산물량인 2만8,000여 톤 중 67%에 해당하는 1만5,500여 톤을 CJ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학교급식에 익산시가 생산한 친환경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판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8개 위생단체장들, '참여방역' 실천 결의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응 위해

군산시는 22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8개 위생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응을 위한 '참여방역'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8개 위생단체장들이 '참여방역'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22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8개 위생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응을 위한 '참여방역'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유흥업중앙회 군산시지부, 한국외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 대한제과업협회 군산시지부, 대한숙박업중앙회 군산시지부, 대한목욕업중앙회 군산시지부, 대한미용사회 군산시지부, 대한이용사회군산시지부 등 위생단체의 지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유흥업중앙회 군산시지부 유인옥 지부장의 결의문 낭독에서 위생단체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위생업소 현장에서의 '참여방역' 실천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앞장서며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시는 코로나19 발생이후 민?관이 협력해 방역수칙 홍보 및 지도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시민들의 자율방역을 강조하며 경제상황, 소상공인 등을 고려해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해진 만큼 위생단체의 자율방역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위생단체장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방역 소홀에 의한 위생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와 주 1회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등 '참여방역' 실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군산=고병만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아까히'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해주세요

정헌율 익산시장, 현대필터산업서 현장행정

기업 애로사항 청취

정헌율 익산시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제조기업 산업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 시장은 22일 현대필터산업(주) 현장행정을 실시하며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현대필터산업(주)은 제2일반산단에 소재한 담배필터 제조기업으로 현재 제조 현장의 각종 데이터들을 수집·분석 관리·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시스템'과 제조시설의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해 담배필터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항온항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여건에서도 꿋꿋하게 산업현장을 지키고 있는 기업인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며 "더불어 최근 위기가정을 위한 나눔곳간 기부 동참에 감사드리며 익산시와 기업 간 소통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덕호 현대필터산업(주) 대표는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시정에 바쁜 시장님께서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인의 자존감을 상승시켜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필터산업(주)은 지난해 6월 1만6,521㎡ 부지에 추가로 신공장을 증축해 스마트공장 시스템과 항온항습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익산시에서 37년간 사업을 영위하며 익산 나눔곳간 기부 참여 등 지역사회 소통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부동산 투기 근절 앞장설 것"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사진)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시의회는 "최근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투명하고 청렴한 시의회 구현을 위해 부동산 투기 근절에 앞장서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관련 조사를 성실히 받을 계획이다.

또한,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다면 수사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 의장은 "이번 기회에 의회가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에 노력하며, 공직사회의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박맹수 원광대 총장 인문콘서트로 대학 홍보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이 오는 26일 부여 신동엽문학관에서 열리는 지역화폐전문가 컨퍼런스와 함께 진행되는 인문학콘서트 발제자로 참여한다.

박맹수 총장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인문학 콘서트의 발제자로 초청돼 관련 주제 발표와 함께 글로벌 개벽대학을 추구하는 원광대 현황 및 비전을 설명하면서 직접 대학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